



「아시아特許廳」 설립 提案 日本特許廳, 홍콩 심포지엄에서

日本 통산성과 特許廳은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아시아特許廳」(가칭) 설립을 提案했다.

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의 技術移轉 촉진과 아시아工業化의 협력은 물론이고 각국 特許制度의 整備를 촉진하기 위해 日本을 포함한 아시아諸國이 참여하는 特許廳 설립을 制案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초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知的 所有權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밝혀졌는데, 아시아特許廳의 형태는 유럽特許廳(EPO)과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提案했다는 것.

아시아特許廳 설립은 나라마

韓國發明特許協會캠페인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사랑
이웃끼리 나눈은정
밝아오는 우리사회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
에 너지는 국력이다
아껴 써서 애국하자

다 각기 다른 수속때문에 번잡한 出願節次를 피하고, 權利의

國際化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日本, 實用新案制度 폐지 檢討 대상 縮小 및 無審査登錄제도 檢討

日本 特許廳은 實用新案制度 폐지를 檢討하고 있다.

日本特許廳 관계자에 따르면 日本은 技術수준의 향상과 企業의 開發수준의 향상과 企業의 開發競争에 따라 特許出願件數가 급증, 審査期間의 장기화 때문에 國際的 비판의 소리가 날로 높아져 小發明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實用新案制度의 폐지를 檢討하기에 이르렀

다. 그런데 日本特許廳은 實用新案制度 폐지와 함께 改善方案도 檢討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檢討대상은 實用新案權 대상의 축소와 無審査登錄制度로의 전환등이다.

한편 實用新案制度에 改善이 이루어지면 그 實施 시기는 내년부터가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對 中共 特許出願 가능 홍콩의 永新, 本會에 직접 알려와

우리나라의 對 中共 特許出願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

中共 정부로부터 外國人의 中共內 工業所有權 관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홍콩의 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香港九龍尖沙咀東部 永安廣場 103室 電話: 3-7391818)가 최

근 本會에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中共에 대한 韓國人의 工業所有權出願을 접수하도록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것.

中共의 이같은 조치는 韓·中共間의 교역의 촉진 및 韓國과 의 合作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한 공식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